출 장 복 명 서

2011. 5. 31

김 기 환 연구자문위원

1. **프로젝트명:** 한국경제: 현재까지의 발전과 향후 세계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여행목적 :** 국제경제전문가 면담(Berkeley, Stanford, Columbia, Harvard, Toronto 대학 등 방문)

3. **여행 동기 및 배경 :** 국제 경제전문가 면담을 통해 국제금융체제를 비롯한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한미·한중·미중일·남북 관계 전망 및 한국경제 미래 비전에 대한 견해 교환

4. **여행기간 :** 2010년 4월 29일 ~ 2010년 5월 18일

5. **여행국 :** 미국(뉴욕, 워싱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및 캐나다(토론토)

6. **여행자 :** 김기환 연구자문위원

7. **주요 면담자(기관) :**

- Larry Krause 교수 (UC San Diego 명예교수)
- Stephan M. Haggard 교수 (UC San Diego 교수)
- Barry Eichengreen 교수 (Berkeley Univ.)
- Dwight Perkins 교수 (Harvard Univ.)
- Ronald I. McKinnon 교수 (Stanford Univ.)
- Hugh Patrick 교수 (Columbia Univ.)
- Stephen W. Bosworth 학장 (Tufts Univ.)
- Nicholas Eberstad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Charles Pritchard 회장
  (President of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 Danny Leipziger 교수
  (전 World Bank 부총재, George Washington Univ.)
- Mark Minton 회장 (Korea Society)
- Marcus Noland 박사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Wendy Dobson 교수 (University of Toronto)
- 한덕수 주미한국대사

8. **주요활동성과** : 이번 출장의 주목적은 본 연구 프로젝트 '한국경제: 현재까지의 발전과 향후 세계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하여 준비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한국경제 미래비전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학계에 몸담은 세계적인 권위자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경제 정책에 직간접 관여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었음. 이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현실성 및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 방향은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음. 더불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한미·한중·미중일·남북관계 등 국제관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됨.

   ○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의 큰 변화에 대체로 성공적으로 적응했으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보여왔다고 평가

   ○ 특히 "Premier Business, Cultural and Intellectual Center in Asia"라는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의 가

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음.

○ 높은 교육수준과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 특히 금융·물류·R&D·의료·디자인·문화콘텐츠 등 여러 서비스분야에서의 발전과 가능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이에 더해 한국은 최근 EU와의 FTA 체결에 이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들과의 FTA가 발효되면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한국이 동아시아 중심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경제부문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개혁과 개방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식기반경제로 서둘러 진입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그리고 중국의 부상 및 북한의 3대 세습시도로 말미암아 급변할 수 있는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국은 보다 더 다자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출장 중 세계적인 권위자 및 전문가들과 견해를 나눈 것은 향후 연구진행에 필요한 외부논평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결과를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포석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음. 최종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부논평 및 최종점검을 위한 추가적 의견 교환을 외부전문가들과 e-mail 등을 통해 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이들 경제전문가들과 본 프로젝트의 최종연구결과를 직접 검토하기 위해 해외에서 소규모 워크숍을 열 수 있다는 것도 합의하였음.